‘원각 지혜’ 보인 성타 대종사, 적멸로 나아가다

조계종 원로의원·불국사 회주 성타 대종사 영결·다비식 봉행

8월 19일 경주 불국사 일원서
2천 사부대중 운집…추모 열기
대중들, 대종사 실천행 등 기려
10월 2일 불국사서 49재 봉행

경주 · 글=신성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8월 19일 경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된 나가당 성타 대종사 영결식에서 영결법어를 설하고 있다.


거화된 연화대를 향해 합장하고 있는 문도스님.


성타 대종사의 다비를 보며 오열하는 신도.

“대화상께서 몸을 숨기시더라도 당신의 그림자는 드러나기 마련이니 뜻을 같이하는 후학들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경주 불국사 회주인 나가당 성타 대종사가 사바세계의 육신을 벗고 무위적멸의 세계로 나아갔다.

불국사 성타 대종사 장례위원회는 8월 19일 경주 불국사 무설전 일원에서 성타 대종사 영결 · 다비식을 원로회의장으로 엄수했다.

이날 영결 · 다비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교구본사협의회장 정도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타 대종사를 추모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영결법어에서 동산 양개 선사와 운암 선사의 일화를 법공양하며 성타 대종사에 “필경에 진리의 일구는 어떠하겠습니까”라고 묻고 “마침내 찬 겨울 달이 집 앞 연못에 떨어져 출렁이도다”라고 설했다.

이어 “대종사께서는 본원력으로 이 땅에 오시어 본분사를 여실히 보이시고 원적에 들었다. 금일 나가당 성타 대종사 각령전에 동산의 진미 법공양을 올리오니 잘 받으시어 진리의 삼매락을 누리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영결사를 통해 성타 대종사가 행한 실천의 삶을 기렸다. 자광 대종사는 “대종사는 은사이신 월산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상대를 배려하고 항상 하심하는 삶을 실천했다. 수십 년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남몰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서원대로 평생토록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자운을 일으키고 교화의 법륜을 움직이며, 진리의 법고를 울려서 정법의 당간지주를 높이고 불일(佛日) 더욱 빛나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성타 대종사가 평생을 걸쳐 보인 원력을 되새겼다. 진우 스님은 “대종사는 일평생 교구와 종단에서 크고 작은 소임을 맡아 살면서도 일에 관한 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한 문경서와 일본어 논서를 손에서 놓지않는 수불석권(手不釋卷)의 삶이셨다”면서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나누지 않았기에 비정부기구와 환경단체의 일에도 참여와 외호를 아끼지 않으셨다. 천년고도에서 유형의 문화유산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문화재도 그 소중한 가치를 안팎으로 널리 알리셨다”고 상찬했다.

이어 “오늘 이후 대화상께서 몸을 숨기시더라도 당신의 그림자는 드러나기 마련이니 뜻을 같이하는 후학들이 늘 함께할 것”이라며 “활안(活眼)으로 교화하신 원각(圓覺)의 큰 지혜는 이내 천백억화신으로 나투실 것을 사부대중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각계 인사들도 조사를 통해 성타 대종사의 원적을 기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에서 “성타 대종사는 광도중생을 위해서라면 맨발로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섰던 전법사의 길을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신 참스승이셨다”고 회고했으며 금오문도 사숙대표 함주 월복 대종사는 조사를 통해 “오늘 펼쳐지고 있는 대종사의 마지막 법석에 함께한 대중들은 대종사의 가르침과 참 의미를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고 있다”고 추모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은 조사에서 “후학들은 대종사의 위 없는 가르침들을 매 순간 등불과 거울로 삼아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잃지 않을 것”을 발원했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후학을 위해 길을 찾아내고 청년대학생이 세상의 모범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돌보는 것으로 삼겠다. 이것이 곧 스님께서 평생 고심하셨던 중생을 위한 길이라고 여기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도 조사를 통해 “일생에 걸쳐 포교와 불사, 사회를 맑게 하는 시민사회운동을 견인하신 대종사의 포교와 전법의 역사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천하는 현신이 될 것을 각자의 마음에 새겨 본다”고 추모했다.

이밖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도 조사를 통해 성타 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계승 · 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영결식은 문도대표 정문 스님의 인사로 마무리됐다. 정문 스님은 “스승을 이리 허망하게 빨리 보낸 죄인”이라며 문도스님들과 함께 참회와 정진의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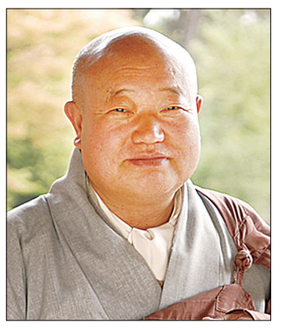
영결식 이후에는 다비식이 엄수됐다. 성타 대종사의 법구는 인로왕번, 명정, 삼신불번, 오방불번, 만장을 위시한 장의행렬과 함께 연화대로 이운 · 안치됐다.

“불, 법, 승! 스님, 불 들어갑니다.” 연화대에 불을 당기는 거화의식이 진행됐고, 성타 대종사의 법구는 연화장 세계로 나아갔다. 문도스님들과 참석 대중은 성타 대종사가 보이는 마지막 법문을 바라보며, 눈물로 배웅했다.

나가당 성타 대종사는 1952년 학성선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8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호계원장과 포교원장, 제6 · 7 · 8 · 10 · 11대 중앙종회의원, 불국사 주지,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림문화재연구원 이사장,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마음 멈춘 곳에 행복이라〉 〈금오집〉 〈자연과 나〉 등을 비롯해 번역서 〈불소행찬〉, 다수의 논문 등을 냈으며, 지난해에는 학인시절부터 쓴 일기와 법문 등의 기록을 엮어 〈노을을 등지고 달을 벗 삼아〉를 출간했다.

한편, 성타 대종사의 초재는 8월 21일 경주 불국사에서 2재는 8월 28일 대구 향림사에서 봉행됐다. 3재는 9월 4일 경주 기림사, 4재는 9월 11일 영덕 유금사, 5재는 고양 흥국사, 6재는 9월 25일 마산 광명암, 49재는 10월 2일 경주 불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가당 성타 대종사 행장



불국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 나가당 성타 대종사〈사진〉는 1941년 경남 울주군에서 태어나 1952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은사로 동진에 출가했다. 1952년 울산 학성선원에서 금오 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8년 범어사에서 동산 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1년 영축총림 통도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고, 법주사 강원의 강사를 지내며 후학양성에 진력했다.

1974년 은사스님을 모시고 사형사제들과 함께 불국사 소임을 맡아 당시 어려웠던 불국사를 지극한 정성과 절약정신, 솔선수범으로 불국사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1982년 조계종 교무부장을 맡아 종단 교육 불사에 기여하신 이래 6차례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1995년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재임하며 포교와 전법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종사는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와 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창립해 포교에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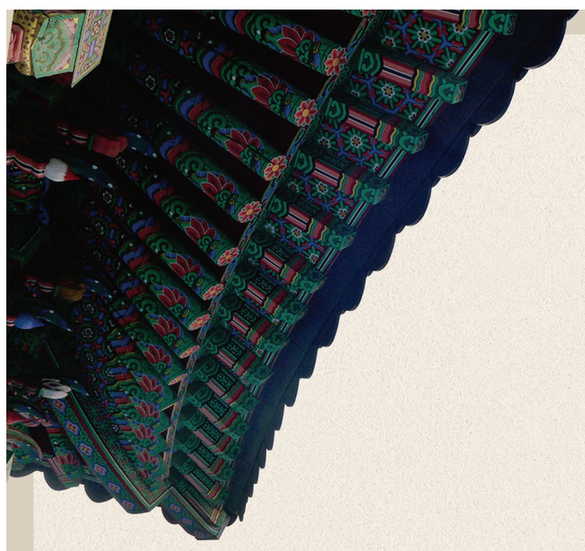
1998년 불국사 주지를 맡은 이래 지역의 포교와 전법에 매진했으며 종단의 호계원장을 맡아서 지계청정과 수행가풍, 종법질서를 올곧게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대종사는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사회운동과 남북통일과 환경운동에 진력해 조계종 초대 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대자연환경보존회와 청정국토가꾸기 운동, 경주생명의 숲 등 환경 NGO의 이사장과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종단과 환경운동을 선도 · 견인했다.

또 경주 경제정의시민연합회의 창립을 주도하고, 단체의 대표를 맡아 경제정의구현과 경주 방폐장 유치문제의 갈등과 잡음을 해결해 지역공동체로부터 지혜의 큰 스승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성타 대종사는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2002년 12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대종사는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으며, 2022년 11월에는 70년 수행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노을을 등지고 달을 벗 삼아〉를 발간했다.

대종사는 불기2567(2023)년 8월 15일 오전 11시 20분 ‘如是來 如是去 此生死 不可言(이와 같이 왔다가 이와 같이 가는구나 이것이 나고 죽음이니 가히 말로 해서 무엇하리)’ 열반게송을 남기시고 법납 72년, 세수 83세로 불국사 정혜료에서 원적에 들었다.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서울 종로구 낙산 묘각사
☎ 02.763.3109